리얼크리스찬 (8)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12 - 19)

✝ 말씀 나누기

1.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더 선한 응답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가정과 직장,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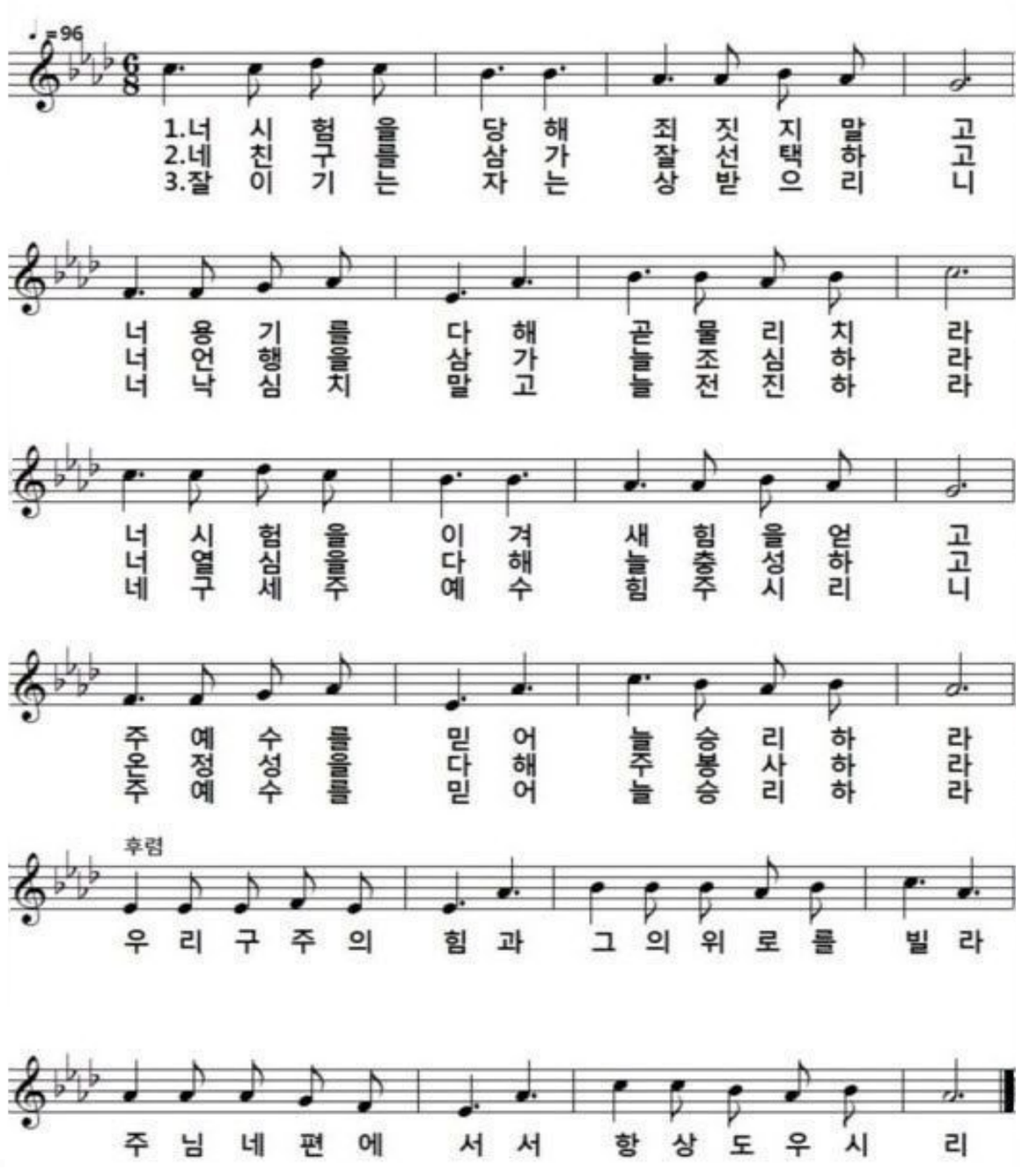
✝ 함께 기도하기

1.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선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염려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과 상처를 경험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보복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

너 시험을 당해 (342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론 1 | 불시험의 자리에서 당당하십시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손해를 보거나 고립되고 비난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요구하는 부정직한 선택과 잘못된 관행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어떤 불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론 2 | 심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시험을 가져오지만, 그 불을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은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빚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불을 붙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불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질병과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가 아니라 정결과 회복이며, 우리를 더욱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본론 3 | 창조주께 맡기고 선으로 이기십시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시작이시며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받을 때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뿐 아니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기독교를 미워하던 사람들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향나무가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히듯, 우리도 상처를 주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론 |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미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선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로 고백할 뿐 아니라 정직과 순종,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